

You're very special to me.

It is difficult to say what is impossible, for the dream of yesterday is the hope of today and the reality of tomorrow



신성원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저번 모임 때 게임기획자가 꿈이라고 자선있게
말했던 학생 김선재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간에 비해 농도 짙었던 값진 대화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님께서 경험과 처형을 많이 하라고 하셨던
조언이 ('소감 한마디' 시간 때도 말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틀어박힌
일상을 설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할렐루야'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무안'가는 길까지 2시간 정도 작은 여행을
헤 보았습니다. (마크쓰고 인적드문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 사진도 찍고 풍경도
감상하며 의미 있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집에 돌아와서 다리가 쭉셨지만 나름대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
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팀원들을 위해'
서 쓸려야 하는 경우라면 필요하다.'는 조언이랑 '힐링산업'이라는
키워드는 저의 꿈인 훗날에 게임회사를 창업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리더가 된다면 쓰쓰라도 책임감 있게 하며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링산업'라
게임의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이고
경쟁하는 게임 산업 가운데 유저분들에게 좀더 같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내에 자리 잡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황에 들러 가까운 곳에 가게 된다면 꼭! 시간내서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소비자들 위한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0 / 4

세상을 바꾸는 꿈 김선재 올림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사회를 맞았던

이기환이라 합니다.

멘토님이 계신곳에 가서 개도 보고

식물도 보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시골은 정말 힐링 되는 곳이었습니~~다~~다

전 시골이 정말 재미없고 할거없고

따분한건줄 알았는데 시골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

예전에 도시에서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골도 행복 다는걸 멘토님이 알려 주셨

멘토님 감사해요

2020년 4월 28일

이기환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강승윤입니다.
제가 허니목화를 방문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구나!

농업이 이렇게 중요한 ~~것~~ ~~것~~

알았으면 진작 부터 관심을
가질걸 그랬나 생각도

드립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한수있게 가르쳐 주신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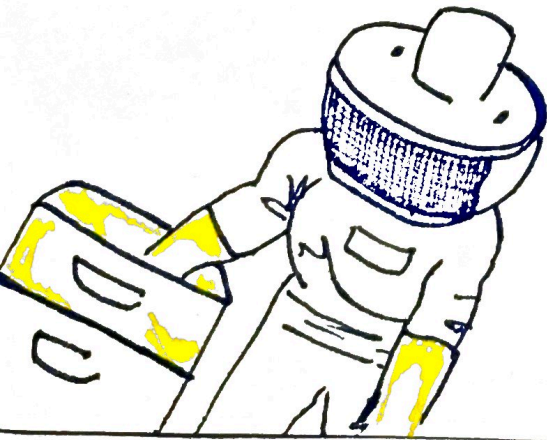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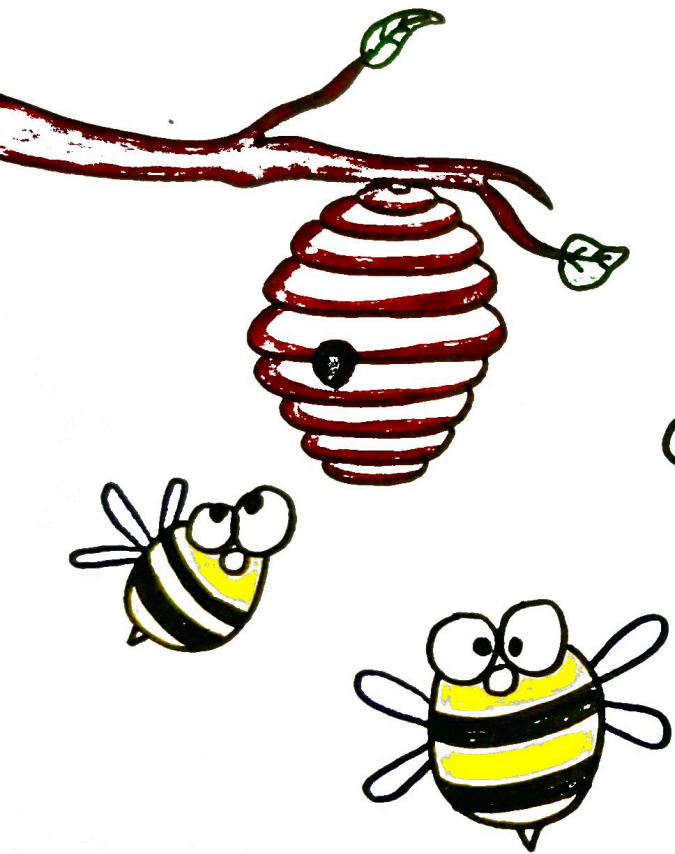
다음에도 방문하고

허니목화를 많은 사랑에게

안리하게 하겠습니다.

2020-4-28

- 강승윤 올림 -



꿀벌들이 꿀 19을 모으기 위해서는
꽃 8000송이를 오가야만 얻는다.
꿀 19, 하나의 목표를 치고 8000송
이를 오고 간다.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
보인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생긴다. 그
결과가 초라해보일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없다. 그것만 값진 경험
이다. 꿀벌들의 행동을 신중히 관찰하면서
다시 일어설수 있는 힘을
가진다.

-임백-

